

'강철비2' 정우성 "대한민국 대통령 연기 어렵고 외로워"

전쟁 위기 한반도 평화 지키려는 대한민국 대통령 연기

"강철비 시리즈 인물·설정 다른것, 굉장히 똑똑한 기획"

배우 정우성이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기한 소감을 밝혔다.

정우성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진행된 라운드 인터뷰에서 "어렵고 외로웠다"고 운을 뗐다.

'강철비'에서 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 찬 북 최종요원을 연기한 정우성은 이번에는 전쟁 위기 속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변신한다.

정우성이 연기한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냉전의 섬이 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민하는 인물이다.

남북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난감함과 무력감, 그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역으로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다.

양우석 감독은 한경제 캐릭터를 통해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표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정우성은 "한북미 회담 장면을 찍을 때 갑자기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것이 진짜 극한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걸 어떻게 인내하지? 우리는 대체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거지? 싶더라"며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를 한다는 것은 진짜 극한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직업이자, 외로운 직업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돌아왔다.

침묵 속에서 한경제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해야 했기에 연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지점들도 어려웠다. 한경제 캐릭터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심리적인 답답함과 괴로움을 비쳐야 했다"며 "침묵 안에서의 외침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에게 대한 연민의 마음과 긍정적인 미래와 출발, 그 신호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강철비'에 비해 '강철비2'가 더 어려웠다는 정우성은 "뭔가를 한다는 것,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내가 했다'라는 만족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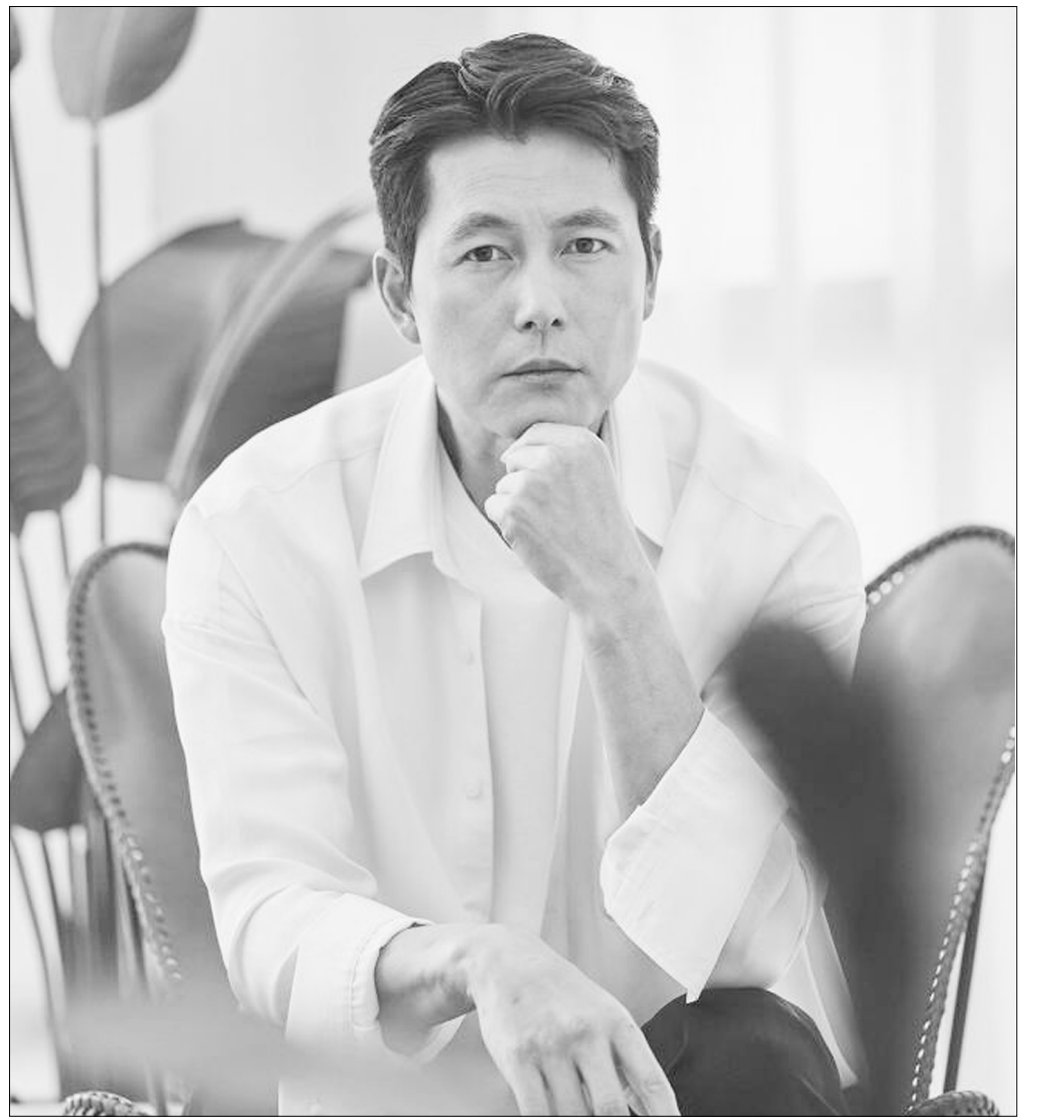
하지만 하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 인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런 심정을 촬영 내내 느꼈다"고 했다.

언론사회에 영화를 본 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한 경제 대통령의 모습에 몰입했을 수도 있고 영화가 말하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납달랐다"고 말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충분히 불행한 시간을 겪었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영화가 끝나고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앉아있었다" 강철비 시리즈의 인물과 설정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똑똑한 기획"이라고 자부했다.

정우성은 "강철비" 1편은 남북에 사는 인물들의 판타지적 상황에 집중한 작품이고, '강철비2'는 이 시리즈에 주인공은 한반도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 분단을 이야기하면서도 인물을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고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똑똑한 시리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철비2: 정상회담'은 남북미 정상회담 중에 북의 쿠데타로 세 정상이 북의 핵잠수함에 납치된 후 벌어지는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을 그리는 영화다. 29일 개봉.

뉴스스



손연재, '위대한 배태랑'에 '리본 안무' 비법 전수

일일 서포터즈...배태랑들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 도와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위대한 배태랑'에서 자신의 다이어트 비법을 전수한다.

손연재는 27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위대한 배태랑'에 개그맨 조세호와 함께 일일 서포터즈로 출연해 배태랑들의 슬기로운 다이어트 생활을 돕는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전 김용만이 절친인 개그맨 김수용과 손연재를 만나 리듬체조에 도전했다.

손연재는 두 사람에게 선수 시절 자신의

체중 관리 비법과 식욕을 참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어 은퇴 후 4년이 된 지금까지도 선수 시절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으로 '리본 안무'를 소개했다.

리본 안무는 리본 동작에 춤을 접목해 창작한 것으로, 익숙한 노래에 맞춰 따라할 수 있게 손연재가 직접 만든 안무 장르다.

최근 체중 16kg 감량에 성공한 조세호도 이날 방송에서 안정환과 현주엽의 일일 서포터즈로 나섰다. 조세호는 형들에게 특별한 다이어트 비법을 전수했다.

특히 조세호는 본인의 지방감량 1등공신인 '운동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조세호는 최근 녹화에서 탁선이 살아가는 안정환에게 누드하보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안정환과 현주엽은 이날 방송에서 방송인 장영란의 남편인 한의사 한창을 찾아가 비만 원인을 찾는다. 한창은 "두 사람의 몸이 앞으로 풀렸다"라며 그들의 잘못된 자세를 비만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진 X선 촬영에서 안정환은 어깨에 쌓인 석회를 발견했고 현주엽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현재 무릎 나이가 70대라는 판정을 받았다.

'비♥' 김태희, 스토리제이컴퍼니와 재계약

스토리제이컴퍼니 "두터운 신뢰 바탕...끈끈한 인연 이어가"



배우 김태희가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와 매니지먼트 재계약을 체결했다.

스토리제이컴퍼니는 27일 "김태희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결정, 끈끈한 인연을 이어간다"고 밝혔

다. 스토리제이컴퍼니와 손을 잡은 김태희는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로 5년 만에 안방극장에 컴백, 진정성 있는 열연으로 인생 캐릭터를 다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하이바이, 마마!'의 방송 이후 패션, 뷰티 분야는 물론 각종 소비재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영역을 확대하며 CF 쿼んの 명성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스토리제이컴퍼니 관계자는 "배우와 소속사의 관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김태희와 매니지먼트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몰입양면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리제이컴퍼니에는 김태희 외에 김성철, 김지석, 박훈, 서인국, 유승호, 이시안, 허준호 등이 소속돼 있다.

김태희는 2000년 데뷔, '용팔이', '장옥정, 사랑에 살다', '나와 스타의 99일', '마이 프린세스', '아이리스',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구미호 외전', '천국의 계단'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한편 김태희는 '하이바이, 마마!'를 끝낸 뒤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방탄소년단, 내달 21일 신곡 발표...“신나는 영어 곡”

“신선한 시도이자 도전 될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신곡을 발표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커뮤니티 플랫폼 'BTS 위버스'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오는 8월21일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이 발매된다"고 밝혔다.

공지에 앞서 방탄소년단은 27일 오전 0시 네이버 V LIVE 공식 채널에서 '쿨 FM (지진정의 R.A.D.I.O 라디오) #중대발표' 방송을 진행하며 싱글 발매 소식을 전격 공개했다.

멤버들은 '아미(ARMY) 여러분들을 위해 8월21일에 싱글 음원을 공개하게 됐다'라며 "저희가 작업 중인 앨범은 올해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빨리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싱글을 먼저 발매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팬분들에 활력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신곡에 대해 "굉장히 신나고, 이전에 발표했던 'MIC Drop'이나 피쳐링에 참여했던



'Waste It On Me'와 같은 영어 곡"이라며 "이 곡은 영어로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가이드 녹음을 해봤는데 새로운 느낌이 나왔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저희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이 곡을

준비하게 됐다. 저희에게 신선한 시도이자 도전이 될 것 같다"며 "이 곡을 듣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느낌을 받았다. 이 기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하루빨리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안보현, '티아이포맨' 모델 발탁

"브랜드와 조화롭게 어울린다"

배우 안보현이 컨템포러리 남성복 브랜드 '티아이포맨(T.I FOR MEN)'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됐다.

안보현은 올 상반기 인기리에 종영한 JTBC '이태원 클라쓰'에서 장근원 역

로 분해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선보였으며, 최근에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며 예능감을 뽐냈다.

티아이포맨의 김석주 대표는 "젊고 활동적이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티아이포맨의 이미지와 안보현의 긍정



적이고 활기찬 모습이 브랜드와 조화롭게 어울린다"고 전했다.

'원조한류스타' 보아, 20주년 프로젝트

백현·갈란트·SM 클래식스 등 참여



원조 한류스타인 가수 보아의 데뷔 20주

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27일 0시 자체 음원 플랫폼 'SM 스테이션'을 통해 '아워 비러브드 보아(Our Beloved BoA)' 프로젝트를 예고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그룹 '엑소' 백현과 레드벨벳, 싱어송라이터 불빨간사춘기, 세계적인 팝스타 갈란트(Gallant), SM의 클래식 레이블 'SM 클래식스' 등이 참여한다. '공중정원', '이탈란티스 소녀', '온리 원', '말키 웨이', '나무' 다양한 감성의 보아 히트곡을 재해석한다.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보아는 2002년 한국 가수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류 열풍에 불을 지폈다. 여전히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SM 스테이션은 다양한 가수와의 프로젝트, 작곡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